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8월 미 경제 성장 약간 반등
- NYT: 연준 이사 “11월과 12월에 각각 0.25% 금리 인하 가능”
- Bloomberg: 애틀랜타 연준 총재, “큰 폭 금리 인하, 노동시장에 도움”

[미국 금융]

- WSJ: 금리가 인하하면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미국 생활]

- WSJ: 미 출퇴근 평균 시간 55분... 일부 도시 빠르다
- CNNBusiness: 캘리포니아 주지사, 식료품점 비닐봉투 전면 금지

[물류]

- Bloomberg: 미국 항만들, 선거 시즌에 파업으로 위협 받다

[부동산]

- WSJ: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소유 업체에겐 도움 안 돼
- YahooFinance: 주택시장 회복하려면 금리 인하만으론 힘들어

[전기차]

- Bloomberg: 메르세데스-벤츠 화재로 한국 전기차 미래가 어둡다

[미국 기후 변화]

- WSJ: 미국의 야심 찬 기후 계획이 흔들린다

[미중 관계]

- CNNBusiness: 미국, 중국과 러시아 기술로 만든 스마트 자동차 금지 제안

[인공지능]

- WSJ: AMD “칩 산업은 이제 GPU를 넘어선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Business: 요즘 모든 제품들이 ‘미니’인 이유
- WSJ: Siemens, 전기차 충전기 개발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WSJ: U.S. Economy Stabilized in August, Chicago Fed Says
8월 미 경제 성장 약간 더 반등**

- 오늘 월요일 월간 지표에 따르면 8월 미 경제성장은 약간 반등했다. 그러나 고비용과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전반적인 추세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 시카고 연준전국활동지표는 7월의 마이너스 42에서 8월에는 0.12로 상승했다고 시카고 연준은 밝혔다. 제로 이상은 평균보다 경제 성장이 높다는 의미다.
- 그러나 8월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의 3개월 평균은 감소했다. 역풍이 미 경제를 약세로 계속 흔들고 있다. 월간 지수의 변화가 3개월간의 지표 간에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CFNAI 확산 지수도 7월의 마이너스 0.11에서 8월의 마이너스 0.23으로 비슷하게 하락했다.

WSJ 기사

**NYT: What's Next for Rate Cuts? The Fed Is Watching Jobs and Prices.
연준 이사 “11월과 12월에 각각 0.25% 금리 인하 가능”**

- Christopher J. Waller 이사 등 연준 관리들은 경제 데이터가 양호하게 나올 경우 연준이 금리를 0.25% 향후에 낮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가 상승할 경우 금리 인하를 둔화할 수도 있다.
- 일자리가 예상보다 둔화되거나 인플레이가 기대보다 더 약할 경우 연준은 금리 인하를 더 빨리 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경제 지표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 그는 “경제 데이터가 계속 완만하게 나올 경우 2% 인플레이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공격적인 인플레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YT 기사

Bloomberg: Fed's Bostic Says Large Cut Bolsters Labor Market, Pace Not Set

애틀랜타 연준 총재, “큰 폭 금리 인하, 노동시장에 도움”

- 애틀랜타 연준 총재인 Raphael Bostic은 “인플레이와 고용 간의 리스크가 더 균형 잡히게 조정되는 상황에서 연준의 큰 폭 금리 인하 사이클은 금리를 중립 수준에 근접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그러나 그는 경제를 촉진하거나 둔화하지 않는 이른바 중립 금리 수준이 어디인지 불확실한 데다 인플레이가 되돌아올지 모르는 우려 가운데 연준 관리들이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그는 고용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에 상당한 진척을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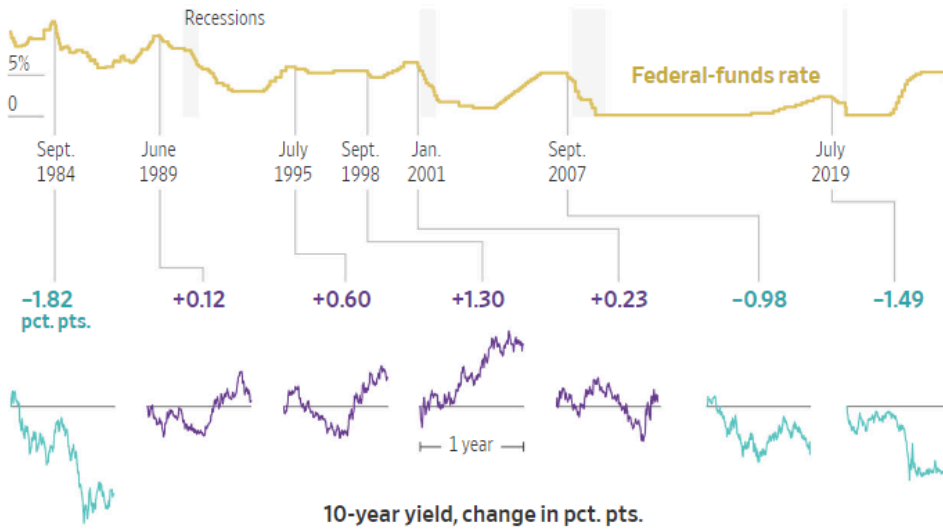
[미국 금융]

WSJ: Here's What Happens to Markets When Interest Rates Fall, in Charts

금리가 인하하면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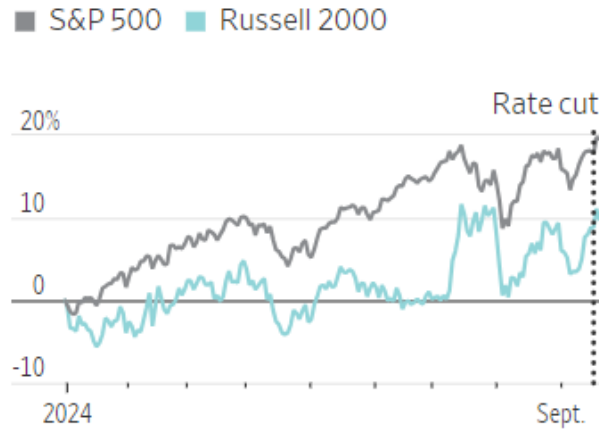
- 좋은 소식은 역사적인 시점에서 볼 때 지난 80년대 이래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후 향후 12개월간 주식과 채권 같은 투자는 성과가 좋게 나타났다.
- 그러나 모든 상황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달려 있다. 경제 성장세가 유지되거나 금리 인하로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기업 수익은 강세를 보이게 된다.
- 그러나 금리 인하가 침체를 막는데 충분치 않을 경우 모든 종류의 투자는 급격한 하락세에 직면한다. 닷컴 버블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보면 알 수 있다.
-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국채 금리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형적으로 주식 또한 금리 사이클에 들어가면 S&P 500 성과는 긍정적으로 바뀐다. 많은 중소기업들의 고비용도 줄어들어 Russell 2000도 상승한다. 달러의 경우 일반적으로 외국 투자자들에게 덜 매력적이라 약세를 보인다. 금값도 인플레이에 대한 헤지(hedge) 역할 때문에 안전 자산으로 간주된다.

10-year Treasury yield, one-year change following first in series of rate cuts



Note: Yield change measured from the day before the Fed cut rates. Bond yields fall as their prices rise.
 Source: Dow Jones Market Data

Index performance, year to date



Source: FactSet

WSJ 기사

[미국 생활]

WSJ: Are You Fast, or Furious? The Best Cities for Commuters 미 출퇴근 평균 시간 55분... 일부 도시 빠르다

- 현재 미국인들의 4명 중 3명은 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 관련 연방 데이터와 차량 공유 회사 Lyft 등에 따르면 오하이오의 콜럼버스나 테네시주의 멤피스는 출근 속도가 빨라 평도로 22분 걸린다.
- 시간당 주행거리를 측정할 경우에는 텍사스주의 Worth와 멤피스, 디트로이트가 빠른 출퇴근 지역으로 시간당 27마일이다. 혼잡하지 않아 속도를 늦출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 평균은 시간당 4마일이다.

- 대부분의 통근 운전자들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비용이 아닌 시간이라고 말한다.

Quickest commutes

CITY	AVERAGE COMMUTE TIME (MIN.)	TRAFFIC (MPH)	SPEED SCORE
Columbus, Ohio	22.0	24.3	100.0
Las Vegas	25.6	24.7	99.9
Memphis, Tenn.	22.0	27.1	99.8
Fresno, Calif.	22.9	26.2	97.6
El Paso, Texas	24.4	27.0	95.1
Detroit	23.9	27.3	95.0
San Diego	24.2	27.1	93.8
Milwaukee	21.7	22.5	90.8
Tucson, Ariz.	24.0	23.5	89.7
Jacksonville, Fla.	24.0	26.8	89.3

Note: Average commute time (in minutes) is drawn from the 2022 Census. Traffic (mph) is the average speed from August 2023 to August 2024 for Lyft rides going to and from offices during commuting hours. Speed score is the sum of these measures plus the percent change in traffic during commuting hours.
 Source: American Census Survey and Lyft

WSJ 기사

CNNBusiness: California governor signs law banning all plastic shopping bags at grocery stores
캘리포니아 주지사, 식료품점 비닐봉투 전면 금지

-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모든 식료품점에서 비닐봉투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2026년부터 효력이 있다.
- Catherine Blakspear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사람들이 비닐봉투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지 않는다. 1인당 버려지는 비닐봉투는 2004년 연간 8파운드(3.6kg)에서 2021년 11파운드(5kg)로 늘었다.”라고 말했다.
- 환경 단체인 미국 환경 연구 및 정책 센터(Environment America Research & Policy Center)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2개 주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CNNBusiness 기사

[물류]

Bloomberg: US Ports Are Threatened With Strikes in Election-Season Jolt

미국 항만들, 선거 시즌에 파업으로 위협 받다

- 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주요 동부 항만과 걸프 항만들의 4만5천명 노무자들은 10월 1일 파업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지난 6월 이래 양측 회담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계 관리들은 파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 해상 운송업체들과 항만 운영회사들은 고객 기업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긴급 상황에 대한 플랜을 만들고 있다.
- 무역 관문의 반 이상이 미국의 항만을 통한 컨테이너로 처리되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1주일간의 파업으로 75억불의 손실이 난다.
- 에너지 터미널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바나나, 합판, 자동차 등 수백만 화물 박스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 제품들의 가격 상승은 물론 항만 혼잡으로 인한 운송 능력 저하로 운임 등이 인상되는 등 파급효과가 글로벌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Strike Threatens Major East and Gulf Coast Ports

Union dockworkers are threatening to walk off the job on Oct. 1



Source: United States Maritime Alliance

Bloomberg 기사

[부동산]

WSJ: The Rate Cut Won't Save These Real-Estate Owners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소유 업체에겐 도움 안 돼

- 부동산 업체들이 금리 인하를 환영하지만, 큰 빌딩을 소유하면서 많은 부채를 지닌 투자자들에게는 너무 늦은 소식이다.
- 수년 전에 많은 아파트 빌딩, 호텔, 다른 부동산 소유자들은 낮은 금리로 혜택을 누렸다. 그때 많은 융자를 했다. 이후 지난 2022년 초에 금리가 급등하면서 상환을 못하고 은행에 부채 상황이 연장되기를 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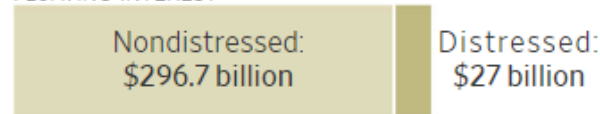
- 일부 부채가 높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는 이 같은 금리 인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부채 상황에 인내심을 가졌던 대출 기관들은 인내심도 바닥이 난 상태다.
- 규제당국의 압력을 더 받고 있는 은행들은 대출기관의 매각을 통해 부실 용자를 장부상에서 정리하고 있으며, 이들 대출기관들은 상환을 계속 연장해 주기보다는 아예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Securitized commercial property loans in August

FIXED-INTEREST



FLOATING-INTEREST



Note: Distressed loans are those where payments are late by at least 30 days or loans that have been transferred to special servicers.

Source: CRED-iQ

WSJ 기사

YahooFinance: It will take more than just a drop in interest rates to save the housing market

주택시장 회복되려면 금리 인하만으론 힘들어

- 금리 인하는 주택시장에 희소식이다. 주택 구매자들의 구매 여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주택시장은 금리 인하만으로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 주택 매물이 부족한 데다 주택 소유자들의 보험 비용 등은 물론,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주택 소유나 임대 비용은 미국인들에 부담을 준다. 미국인들의 임금이나 저축에서 주택 관련 비용 부담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

- 전 주택 및 도시 개발 장관인 Shanu Donovan은 “금리 인하가 좋은 소식이지만 미국의 전례 없는 주택 위기를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놓여 있다.”라고 말했다.

YahooFinance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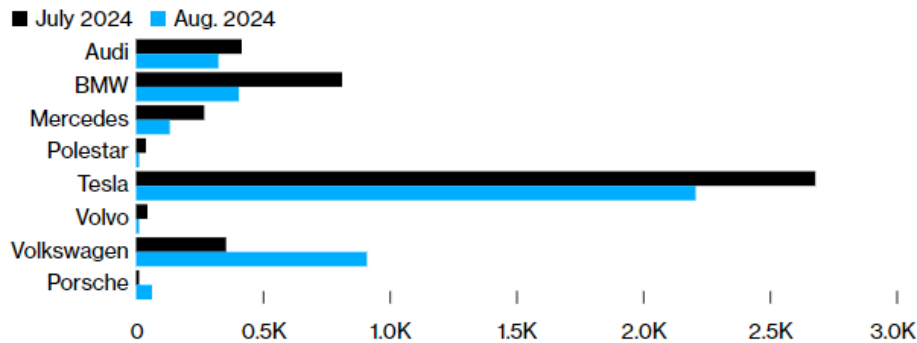
[전기차]

Bloomberg: A Mercedes-Benz Fire May Cloud Korea’s EV Transition
메르세데스-벤츠 화재로 한국 전기차 미래가 어둡다

- 한국 인천에서 발생한 메르세데스-벤츠 화재 사고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대중들의 두려움을 부추겼다. 한국 정부는 이달 초부터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량에 사용된 배터리 공급업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 한국 교통부 데이터에 따르면 사고 이전까지 국내 전기차 시장은 신차 등록의 9%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7월 사고가 발생하고, 8월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장하려던 한국 정부의 노력도 약화되고 있다.
- 현대, 제너럴 모터스, 포르쉐 등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는 자발적으로 배터리 공급업체를 공개하고 무료 안전 점검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주차장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전기차 제조업체와 배터리 충전 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Most Carmakers Saw EV Sales Drop in August

The decline follows a dramatic EV fire in July



Source: Korea Automobile Importers & Distributors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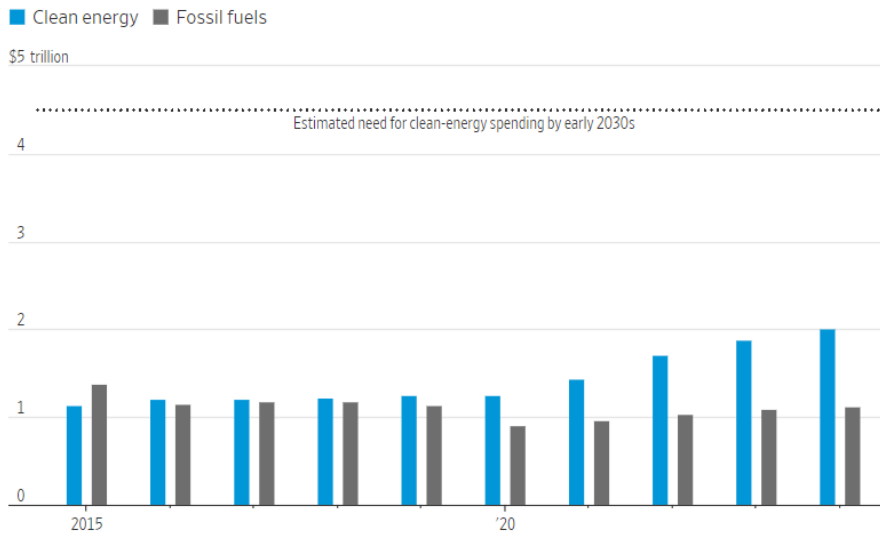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미국 기후 변화]

WSJ: America's Ambitious Climate Plan Is Faltering 미국의 야심 찬 기후 계획이 흔들린다

- 기후 변화 대처에 대한 낙관론이 사라지고 있다.
- 고비용, 기업과 소비자의 반발, 기술 도입이 늦어지면서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수요를 맞추기엔 부족하다.
- LS Power의 CEO Paul Segal은 수요 증가가 빠른 속도로 계속되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전력의 70%를 재생에너지로 채운다는 뉴욕주의 목표는 허가 지연, 비용 상승, 초기 해상 풍력 프로젝트 취소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 미국과 유럽에선 전기차 보급이 둔화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건물의 탄소 배출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가 작년에 감소했다. 재생에너지 개발업체 Vena Energy의 CEO Nitin Apte는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한 때문에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많은 사람과 기업도 희생을 꺼리고 있다. 또한 이른바 '무역 정치'에 기후 정책이 희생되고 있다. 중국은 친환경 에너지 및 자재 공급망의 대부분을 통제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했다. 유럽 연합에서도 농민들의 반발 때문에 올해 새로운 기후 목표에서 농업 배출량 목표를 삭제하고 보조금을 위한 친환경적인 규제를 완화했다.
- 또한 Bain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3년 CEO들의 관심사에서 기후 계획은 인플레이션과 인공지능에 밀려 3위를 차지했다. 포드 자동차는 수요 감소로 전기차 모델 계획을 철회했다.
- 전문가들은 새로운 친환경 기술이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최선의 희망이라고 말한다. 이에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가 쏟아지고 있다. 저탄소 항공 연료를 만드는 Twelve에 6억4천5백만달러, 연료로 사용하면 탄소 배출이 없는 암모니아 생산업체에 15억6천만달러의 정부 대출이 약정되어 있다.

Annual global clean-energy investment needs to soar to limit global warming to 1.5 degrees Celsius



Note: Figures cover clean-energy generation, storage, grids, efficiency and low-emission fuels; 2024 figures are estimates. Sourc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WSJ 기사

[미중 관계]

CNNBusiness: US proposes ban on smart cars with Chinese and Russian tech**미국, 중국과 러시아 기술로 만든 스마트 자동차 금지 제안**

- 연방 상무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 기술로 만든 스마트 자동차 판매 및 수입 금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Gina Raimondo 상무부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스마트 자동차에 해킹에 의한 원격 방해 행위와 운전자 개인 데이터 수집 가능성 등 다양한 국가 안보 위험이 내장되어 있다고 말했다.
- 상무부에 따르면 스마트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금지는 2027년도 모델부터, 하드웨어 금지는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된다. 네트워크 연결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최신 자동차를 뜻하는 커넥티드 차량(connected vehicles)이 차량과 외부 세계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핵심 기술인 블루투스, WiFi, 셀룰러 기술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대한 규제이다.
- 상무부는 해당 규제에 대한 30일간 의견 수렴 기간이 있을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가 끝나기 전 최종 규제안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Lin Jian은 “미국이 안보 개념을 확대해 중국 기업과 제품에 차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CNNBusiness 기사

[인공지능]

WSJ: As AI Matures, Chip Industry Will Look Beyond GPUs, AMD Chief Says**AMD “칩 산업은 이제 GPU를 넘어선다”**

- 지금까지 대규모 AI 모델 학습 및 실행에는 대부분 그래픽 처리 장치 (Graphics Processing Unit, GPU)가 사용됐다. 하지만 AMD 최고 경영자 Lisa Su는 업계가 표준화되고 통합됨에 따라 프로그래밍과 유연성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맞춤형 칩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더 효율적이고, 더 작고, 더 저렴한 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 아마존의 AWS Trainium과 AWS Inferentia, 구글의 Tensor Processing Unit(TPU)같이 대형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은 맞춤형 AI 칩을 자체 개발했다. Broadcom의 CEO Hock Tan은 구글 AI 칩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자사 사업부가 분기당 10억달러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 이런 맞춤형 AI 칩은 유연성과 상호 운용성이 떨어진다. 프로그래밍하기도 어렵고, 다른 종류의 칩과 호환되기 어렵다. 시장 정보 회사 International

Data Corp.의 컴퓨팅 반도체 부문 연구 부사장 Shane Rau는 아직 맞춤형 AI 칩의 상업적 판매 시장은 미성숙하다고 말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NBusiness: Why is everything mini these days? 요즘 모든 제품들이 '미니'인 이유

- 패션 공과대학교(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business management) 경영학 교수 Shawn Carter은 팬데믹 이후 매장들이 젊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미니 제품을 더 좋은 진열 공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 미디어 트렌드도 '미니'이다. 틱톡커 Jo Barker은 고급 마이크로백과 미니 제품으로 320만개의 '좋아요'를 모았다.
- Minter의 수석 분석가 Anna Keller은 미니가 유행하는 이유는 인간이 작고 귀여운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미니 제품은 무게 대비 비용은 더 많이 들더라도 다른 제품들보다 저렴하다. 미니 사이즈 뷰티 및 패션 아이템의 낮은 가격은 고객들이 럭셔리 시장에 진입하기 쉽게 만든다. Keller은 미니는 가치 있는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편 환경 단체 Beyond Plastic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Melissa Valliant는 "더 작은 제품은 더 많은 플라스틱 생산으로 이어진다. 기업들은 재사용 및 리필이 가능한 제품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CNNBusiness 기사

Bloomberg: Siemens to Carve Out eMobility Electric Vehicle Charging Unit Simens, 전기차 충전기 개발

- Simens는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eMobility라는 이름으로 분리했다. eMobility는 공공, 주거, 상업 및 지자체 고객을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제공한다.
- Simens는 올해 초 인수한 네덜란드의 전기버스와 전기트럭 고속 충전 솔루션 제공 업체인 Heliox와 eMobility를 합칠 것이며, 향후 파트너십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 eMobility는 독일, 포르투갈, 미국, 인도, 네덜란드에 생산 및 연구 개발 시설을 갖추고 있다.

WSJ 기사

[보고서]**美 빅컷 이후 방향성 찾느라 고민하는 투자자들... "금융주 주목"
침체 징후 없이 빅컷으로 인하 시작... 미국채 금리 올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에도 금융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안 보이는 가운데, 침체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빅컷이 단행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2 일(현지시간) 경제 성장과 사상 최고 수준인 주가지수, 긍정적인 기업 실적 등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이번 달 빅컷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참고할 기존 각본이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하기에는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필수소비재·헬스케어 등 경기방어주나 배당금이 많은 유틸리티 주 투자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